

광주 外高 설립 '산 넘어 산'

행정절차 변경... 규칙 제정 최소 두 달 걸려

장회국 교육감 당선자도 '충분한 논의 필요'

광주시교육청이 성적 우수 중학생의 외부유학을 막기 위해 추진중인 외국어고 신설 사업이 정부의 갑작스런 행정절차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사립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외국어고 신설 및 전환신청 공모에 나서 12일 신청을 마감하기로 했다. 공모에는 1~2개 학교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7월 중 적격한 학교법인을 선정해 2012년부터 개교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이 외국어고 설립을 더디게 하

고 있다.

개정된 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과부 장관의 훈령기준에 맞춰 특수목적고 지정기준 고시절차를 밟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으며,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칙제정에는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교과부 사전보고 등 최소 40~50일이 걸려 빨라도 9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따라서 규칙제정 등이 지연될 경우 2012년 외국어고 설립이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다.

여기에 오는 11월 7일 취임하는 진

보성향의 장회국 당선자의 의중도 걸림돌이다.

장 당선자는 "특목고는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다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외국어고 선정 절차가 장 당선자의 취임 이후로 연기될 경우 원점 재검토 또는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06년부터 외국어고 신설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일부 사립학교와 기업에서 설립 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3차례나 무산됐다.

한편 올해 초 울산과 강원에서 외국어고 개교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외국어고가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며, 매년 100명 이상의 광주지역 우수 중학생이 다른지역 외국어고 등으로 진학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평상복 입고 자전거 타요"

10일 오전 광주시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 주최로 광주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민 평상복 자전거타기 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출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사과목 이수 안하면 서울대 못간다

현 중3부터 의무화

서울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4학년도부터 인문·자연·예체능 등 전 계열 응시자에게 고교 한국사 과목의 이수를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각 고등학교의 과목 선택권이

강화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라 내린 조치다. 서울대는 사회 교과군(群)의 16~22단위 이수를 요구했어도 구체적인 과목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또, 2014학년도부터 4대 과학교과(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중 인문·예체능 계열 응시생은 2과목,

자연계열은 3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을 고교에서 꼭 배워야 한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하되, 2014학년도부터는 최소 단위 기준(4단위)을 없애고 '과목 이수' 조건만 요구한다.

서울대는 수험생의 혼란을 피하고자 2013학년도까지는 기존의 고교 과목 이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강운태 시장 공직기강 잡기 상무지구 상인들 '울상'

광주시청 주변 식당·술집·꽃집들이 울상이다. 최근 주요 고객인 시청 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이다.

상무지구 등 시청주변 상인들은 매출이 폭 떨어진 것은 강운태 시장이 취임 직후 공무원 사회가 핑퐁 얼어붙은 탓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들 몸조심에 식당·술집·꽃집 등 매출 50%까지 '뚝'

상인들은 강 시장이 취임과 함께 공직자의 자세변화를 강조하는 등 '군기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외식이나 회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새 시장 취임 초기 물의를 빚었다가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공무원들이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어 시청 주변 음식점으로 향하는 발길이 예전보다 훨씬 줄었다는 해석이다.

11일 상무지구를 비롯한 광주 시청 인근 업소 주인 등에 따르면 강 시장이 취임한 지난 1일 이후 식당 매출이 평소의 30~4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손님이 한산해진 이유는 강 시장이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외부에서 민원인 등을 만나 식사하기가 부담스러운 데다가, 자칫 "접대받는 것 아니냐"라는 금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탓도 있다.

지난 8일 밤 시청 인근 상무지구 식당가는 예전과 달리 한산했다. C식당 주인은 "평소 20여 팀 이상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5개 팀만이 술을 마셨다"며 "다른 업소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꽃집도 울상이다. 광주시가 강 시장의 취임식 때 화환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매출이 50% 가까이 줄었다고 때문이다. 광주 W꽃집 주인 이모(여·37)씨는 "취임을 전후해 꽃배달 서비스가 많을 것으로 잔뜩 기대했는데, 평일 매출의 절반도 안됐다"고 불만을 표정이었다.

광주시청 한 간부는 "최근 부서 회식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괜히 눈치 없이 직원들끼리 술자리를 하다가 눈에 띄면 좋을 게 뭐 있겠냐"며 "점심 때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퇴근 후엔 직원들과 집 근처에서 간단히 한 잔하고 귀가한다"고 말했다.

/이충행기자 galee@kwangju.co.kr

외국인 맞선남 출국 전 교육 받아야

법무부 프로그램 추진

지난 8일 부산에서 정산병력을 가진 남편이 베트남인 아내를 살해해 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내국인의 사전교육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석동현 본부장)는 우리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를 찾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로 출국하려면 반드시 소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결혼 이민자의 국내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해 우리 언어와 문화를 가르

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해 우리 국민에게도 국제결혼에 앞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행한 만남'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과의 맞선을 원하면 출국 전에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초청이 불허되거나 까다롭게 제한된다.

법무부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수 대상, 벌칙 규정 등의 세부안을 다듬어 조만간 국제결혼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7분
해지기 19시 49분
달돋이 05시 37분
달지기 20시 09분

비바람 잠시 멈춤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이 많겠다.

구분	구름량	기온
광주	구름많음	22/31℃
목포	구름많음	22/28℃
여수	구름많음	22/28℃
완도	구름많음	22/28℃
구례	구름많음	21/30℃
해남	구름많음	22/28℃
장흥	구름많음	22/28℃
고흥	구름많음	21/28℃
순천	구름많음	22/28℃
영광	구름많음	22/29℃
진도	구름많음	22/28℃
전주	구름많음	21/31℃
남원	구름많음	20/30℃
옥산도	구름많음	21/26℃

구분	중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블랙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	☠	☹

◇주간날씨

날짜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23/29	23/28	24/28	23/29	23/30	23/31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장마 주춤 오늘 '뚝뚝더위'

광주·전남 내일부터 15일까지 다시 장맛비

주말과 휴일 동안 내린 비는 12일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13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 지역은 12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 많겠다"고 11일 예보했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2도, 낮 최고기온은 27~31도.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3.0m로 일겠으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하겠다.

다소 주춤해진 장마전선은 13일 오후 늦게부터 제주 남해상에 다시 북상하면서 15일까지 광주·전남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치매환자 월 3만원 지원 광주 서구청

광주시 서구청이 모든 치매환자에게 매달 3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서구청은 7월부터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중인 모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매달 3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치매환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진단서와 약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을 구비해 서구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조이 여행사

234-3222

마카오 (홍콩) 연세가 쉬향 총 6회

부담없음 (2~3개월) - 마카오 (5~15일) 출발

여행사: 조이여행사 (주) 광주광역시 서구 동진로 100번길 100

패키지	내용	가격
홍콩 마카오 2박 4.5일	홍콩 마카오 2박 4.5일	849,000
홍콩 마카오 3박 4.5일	홍콩 마카오 3박 4.5일	849,000
홍콩 마카오 4박 4.5일	홍콩 마카오 4박 4.5일	899,000
홍콩 마카오 5박 4.5일	홍콩 마카오 5박 4.5일	999,000

에어텔

패키지	내용	가격
마카오 에어텔 4.5일	마카오 에어텔 4.5일	649,000
홍콩 에어텔 4.5일	홍콩 에어텔 4.5일	699,000
홍콩 마카오 에어텔 4.5일	홍콩 마카오 에어텔 4.5일	749,000